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안

의안 번호	12-52
----------	-------

발의년월일 : 2012년 7월 2일

발의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주 문

마포문화재단 장신규 대표의 해임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는 2010년 12월 1일 마포문화재단에 장신규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난 제15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장신규 대표에게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경영과 직원 화합을 위한 투명한 인사와, 공금유용 등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마포문화재단 직원의 철저한 복무사항 준수, 경영적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대표 취임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력채용과 직원퇴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또한,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대표 취임 이후 전체직원 42명 중 19명이 퇴사하고 신규로 22명을 채용함으로써, 직원 상호간 반목이 심하고 인사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독선적 조직개편, 방만한 인력운영 및 집행부 감독부서와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표에게 공정한 인력채용으로 조직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엄중 요구하였으며, 거듭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 그러나 장신규 대표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채용으로 직원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시설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지역문화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직원 인력채용 및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상급기관에 부당한 퇴사관련 민원 제기 및 마포문화재단의 업무추진이 부적정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여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마포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 급기야 민원이 제기되어 실시된 감사에서 프로그램 수익자부담금 관리 문제로 경찰에 고발된 현직 마포문화재단 직원이 2012년 6월 15일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장신규 대표가 평소 업무관련 직원 관리감독 소홀, 조직 내 소통 불화 및 갈등을 증폭시켜 일어난 결과이며, 거듭된 구의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의회적인 처사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이에 제170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신규 대표에게 현재 마포 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대표가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였으나, 장신규 대표는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였다.

- 따라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 인사문제, 경영문제, 직원 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기보다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마포문화재단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마포문화재단의 장신규 대표는 마포구의 출연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의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6

4. 이 송 처 : 마포구청장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문화재단에 2010년 12월 1일 장신규 대표가 취임한 이후, 수차례 마포문화재단 직원의 철저한 복무사항 준수, 경영적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독선적 조직운영, 대표 취임이후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인력채용과 직원퇴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장신규 대표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 채용으로 직원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시설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효율적인 지역문화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직원 인력채용 및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상급기관에 부당한 퇴사관련 민원 제기 및 마포문화재단의 업무추진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여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마포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급기야 민원이 제기되어 실시된 감사에서 프로그램 수익자부담금 관리 문제로 경찰에 고발된 현직 마포문화재단 직원이 2012년 6월 15일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장신규 대표가 평소 업무관련 직원 관리감독 소홀, 조직 내 소통불화 및 갈등을 증폭시켜 일어난 결과이며, 거듭된 구의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에 제170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신규 대표에게 현재 마포 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대표가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였으나, 장신규 대표는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였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는 인사문제, 경영문제, 직원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기보다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마포문화재단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마포문화재단의 장신규 대표는 마포구의 출연기관인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의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한다.

2012.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